

9.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고(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창1:24-31).

창세기 1장 26-28절은 외워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모든 사람에게에는 이런 의문이 있다. ‘사람은 왜 지어졌는가?’ 이 의문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말과 같다.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의문이다. 동물처럼 생겼는데 동물이 아니고 신도 아닌 것이 인간이다. 무엇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왜 자기가 있는지 잘 모른다. 책도 읽어 보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대학에서 강의도 들어 보았겠지만 ‘사람은 왜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다. ‘사람은 왜 있는가?’라는 질문은 ‘나는 왜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내가 왜 있는가를 알아야 무엇을 할지 알게 된다. 내가 왜 있는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할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것을 평생 모르고 살면 다른 동물과 다를 것이 없다. 문명이 있고 기계가 있다 해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우리가 살기 편리하려고 이런 저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 과학도 발전되고 기술도 발전된 것이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을 만든 것이 아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잘 살고 있다. 동물들이 인간에 비해서 못사는 것이 아니다. 갈매기는 공중을 날 수도 있고 육지에 살 수도 있고 바다에 살 수도 있다. 농사 걱정을 하겠는가, 사업 걱정을 하겠는가. 먹을 것이 널려 있고 어디 가도 살 수 있다. 그에 비해 사람은 살기 불편하게 생겼다. 건강한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평생을 조심해서 살아야 했고 육체에 어려움이 많아서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나

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무엇이 동물보다 나은지 잘 생각해 보라.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지 다른 동물들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은 것들이다.

갈매기가 인간을 보고 부럽다고 하겠는가. ‘저것들은 왜 저런 것을 타고 시끄럽게 다니는가.’라고 할 것이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저것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다니느냐.”라며 욕을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가는 것을 좋아하는 세계는 아무데도 없다. 어디서 개 한 마리를 보았는데 집에서 특별히 키우지 않는 개였다. 그런데 밥을 주니까 집 주변에 살고 있었다. 그 개는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이었다. 개도 사람이 데려다 키우니까 사람을 따르는 것이지 사람을 좋아하는 동물은 없다. 사람은 동물들에게 인기가 없다. 우리는 스스로 굉장한 줄 알고 있지만 만물이 볼 때는 불필요한 존재가 인간이다. 아마존의 밀림도 사람 때문에 훼손되고 있다고 한다. 잘 살고 있는 세계에 인간만 들어가면 못쓰게 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정치를 하지만 자기들끼리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싸우고 있다. 다른 동물들이 생각할 때 저것들이 왜 싸우는지, 학교는 왜 있는지, 입학시험은 왜 보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뭐라 한다 해서 기분 나쁠 것이 없다. 만물이 다 무시하는데 같은 사람도 무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무시한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자. 별것 아니니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자.

십자가에 못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보면 그런 분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내려오더라도 그분만은 내려올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못내려왔다. 이것을 왜 자꾸 이야기하는가? 우리 인생의 본바탕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별것이 다 있다 해도 사람은 도로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알고 산다면 인생은 얼마나 조용해지는지 모른다. 왜 시끄러운가? 자기를 이상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알면 시끄러울 일이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 이래도 문제가 되고 저래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 나는 이보다 더 좋은 대답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가?

여기서 ‘형상’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하다고 해석한다. 원숭이와 사람은 비슷하다는 식이다. ‘원숭이도 잘만 하면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도 잘만 하면 신과 같이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사람은 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다. 신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잘하면 신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형상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것이다. 상당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많은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양도 나왔고 도 닦는 것도 나왔다. 뭔가 인간과 다른 어떤 것이 되려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사람은 도로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박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다. 아무리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사람은 도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나님도 바꿀 수 없다. 소를 개가 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소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소다. 한번 개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바꿀 수 없다. 바꾼다 해도 표면적인 것만 바꾸는 것이지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한다. 한복을 입다가 양복을 입는 식이지 옷을 바꿔 입는다 해서 몸뚱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 계급을 달았다 해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대로 있다. 이것이 창조다. 창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바꿀 수도 있고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창조된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인간만 아니라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러하다. 그러므로 처음에 만들어지기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해 놓았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불교에서는 사람이 수양을 하기 따라 어느 단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성불을 하게 되면 신과 같이, 아무 제한도 없는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연히 급수가 생기게 된다. 비행기를 시속 1000Km인 것을 만들었어도 기술이 발달하면 시속 2000Km인 것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수양을 하면 1000Km로 가던 사람이 2000Km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비행기마다 값이 다르고 평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시속 1000Km로 만들어졌으면 1000Km 그대로다. 아무리 해도 1000Km 이상은 될 수 없다. 그래서 평등한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들어오지 않으면 평등이라는 것이 없다. 무슨 수로 평등해지겠는가. 재산이 똑같다 해서 평등해지겠는가, 계급장이 똑같다 해서 평등해지겠는가. 중공군을 포로로 잡고 보니 계급장이 없어서 누가 소대장이고 누가 중대장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평등한 것이 아니다. 계급장이 없어도 그 중에 지도하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어떤 것도 평등할 수 없다. 요즘 평등을 주장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등하게 하려고 하지만 평등이라는 것은 없다. 절대로 속으면 안된다. 돈에서 평등하면 계급에서 평등하지 않고 계급에서 평등하면 돈에서 평등하지 않다. 사람마다 능력에 차이가 있으니 어차피 평등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바꿀 수 없다.

사람은 이래도 사람이고 저래도 사람이다.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내려온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서 오천 명을 먹일 수도 있었다. 십자가에서 못내려오신 분과 오병이어서 오천 명을 먹이신 분이 다른 사람인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비슷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력이 비슷하거나 능력이 비슷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기에 딱 맞다는 뜻이다. 장갑을 보면 손에 끼려고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갑은 손의 형상을 따라 손의 모양대로 만들어져서 누가 봐도 손에 끼는 것인 줄 안다. 책가방을 보고 손에 끼려고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형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장갑을 보면 손에 끼는 것이라고 알게 된다. 그런 의미의 형상이다. 무엇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모양을 형상이라고 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양이 없고 형상이 없다. 자기가 나타낼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신 것이다. 창세기 1장에는 여러 가지 만물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을 짓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 따로 달 따로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그런 과정을 지나서 지었다는 말이다.

공장에서 만드는 기계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지만 생명은 씨에서부터 열매까지 가는 과정이 있다. 과정마다 모양이 다르다. 씨가 다르고 싹이 다르고 가지가 다르고 꽃이 다르다. 다 다르지만 생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는 데로 간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처음에 뿌린 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과정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식물, 날짐승, 물고기, 들짐승은 사람을 지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때는 식물과 같은 인간이고 어느 때는 날짐승 같은 인간이고 어느 때는 물고기 같은 인간이다. 우리 속에 그런 성분이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극락이 좋은 곳인 줄 알지만 불교에서는 극락이 별로 좋은 데가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극락은 너무 즐거워서 도를 닦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를 보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한다. 그러니 어떻게 명상을 하겠는가. 가만히 있어야 보리수 밑에 앉아서 명상을 할 수 있지 새처럼 한 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극락은 별로 좋은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천당도 그러하다.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에 간다고 믿었고 천당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천당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먹을 것이 풍부하고 기화요초가 만발한 곳이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당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우유와 버터가 넘치는 곳이다. 서양 사람들이 천당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들어 보면 또 다르다. 캄캄한 굴속을 지나서 강력하게 빛이 비치는 세계를 보았다고 간증한다. 잠재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서양 사람들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캄캄한 곳에 가둔다. 화장실에 갇혀서 한 시간이나 삼십 분을 꼼짝 못하고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캄캄한 곳에서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겠는가. 거기서 문이 열렸을 때 빛이 환히 비치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그래서 천당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같다. 캄캄한 굴속을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쳐왔다는 것이다. 물론교를 창시한 조셉 스미스도 그렇게 간증했다. 하나님을 찾아서 산 속을 가다가 갑자기 빛이 비쳐왔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없다. 천당이라는 것도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작년에 죽었다 깨어났는데, 깨어난 것도 아니고 안깨어난 것도 아닌 상태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예쁘게 단장되어 있었다. 잔디가 새파랗게 깔려 있고 거기 빨간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래서 속으로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잘 가꾸어 놓았지?'라고 생각했다. 내가 천당에 갔다 본 것이 그것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천당이 다르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고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했다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이 맞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았다.' 이 한 마디로 모든 인간을 말해 놓은 것 같다. 지금 세상을 자세히 보고 우리 주변을 자세히 보자. 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살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생각에 좋을 대로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려고 지어 놓으셨다.

전구의 유리는 맑고 투명할수록 좋다. 안에서 빛이 비치면 그것을 100% 발산해야 하니까 자기 색깔이 없을수록 좋다. 100% 증거하려면 자기 생각이 없어야 한다. 내 생각이 첨가되면 100% 증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의 유리를 원하신다. 해

방 후에는 유리가 없어서 현 유리를 녹여서 만들었는데 전구에 버클이 있어서 불을 켜면 그림자가 졌다. 지금은 유리모래를 끓여서 깨끗하게 전구를 만들기 때문에 그림자를 느끼지 못하는데 옛날에는 전구 유리가 나쁘니까 불을 켜면 그림자가 어롱거렸다.

하나님도 자기를 표현하라고 만드셨으니까 아주 좋은 최상품의 유리로 만드셨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최상품의 유리로 전구를 만든다. 그래야 빛이 그대로 비친다. 수술실 같은 데서 빛이 비치는데 어롱어롱하면 안되니까 정확해야 한다. 현미경을 보는데 옛날처럼 어롱어롱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사람들은 수양을 해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고 하니까 자기에게밖에 소용이 없다. 진짜로 수양을 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해야 좋다. 그래야 완전하다.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고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한 것이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은 처음 보았다는 뜻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본 사람 가운데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표현한 사람은 처음 보았다는 뜻이다. “야! 처음 봤다. 처음 봐. 이렇게 좋은 등은 처음 봤다.”라는 말이다. 제자들이 예수를 경험한 결과 등 중에 최고 좋은 등이라는 것이다. ‘정말 창조한 그대로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몰랐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창조하셨구나.’라고 보았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안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은 제일 늦게 쓰여진 복음서다.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사도 요한이 그분을 경험하고 자기 속에서 알아차리고 계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종합된 말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거꾸로 돌아와서 읽어야 되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런 분이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제자들이 그분을 처음 만날 때는 단지 갈릴리 바닷가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을 경험하고 경험하다 보니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한 것이다.

1장은 총론이다. 총론을 잘 읽으면 전체를 알 수 있다. 성경은 논문과 다르게 연역적 방식으로 쓰여졌다.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연역적으로 제시하고 세부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이다. 1장을 확실히 알면 전체를 아는 것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알면 전 성경을 다 아는 것이다. 1장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리이러하게 하자.” 하신 것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말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경험해 보면 알 수 있다. 성경에만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만 써 있으면 신화에 불과하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창세기 1, 2, 3장을 신화라고 생각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자기 안에서 경험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경험으로 보지 않고 역사로 보니까 신화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신화가 아니다. 신화적인 방법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 이야기다. 내가 어떻게 지어졌느냐의 문제지 옛날에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는 말이 아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지어졌느냐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지어졌느냐는 말이다. 현재적인 말이고 실존적인 말이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것이다. 이것은 실재니까 천 년 전에 본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같다. 만년 전에 콩을 본 것이나 지금 콩을 보는 것이 같다. 창세기 1장은 천 년 전에 보나 천 년 후에 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이야기고 나 자신의 이야기다.

나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옛날이야기나 신화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이야기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이리이러하게 하자.” 이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구나.”라고 읽어야 한다. 나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을 나타내려고 만들어졌다.

우리가 복된 사람인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즐거워한다. ‘아! 그렇구나. 아름답구나. 완전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안됐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니까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복된 사람이다.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복된다.

이영화 형제의 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주일학교 캠프에 가서 귀가 열렸다고 한다.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다. 신기하다.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스마트폰으로 계속 판짚을 해 봐어도 계속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식구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다고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순모임을 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손녀가 간증을 하니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린 나이에 다른 세계를 보고 경험한 것인데 이것은 평생 간다. 중간에 판짚을 하거나 잘못되더라도 반드시 도로 찾는다. 에덴을 본 사람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온다. 연어가 자기 모천을 찾아가듯이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지식이 아니다. 말은 오래 안하면 잊어버린다. 열여덟에 위안부로 끌려가서 70이 넘어 돌아왔는데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다. 배운 것은 잊어버린다. 그런데 본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더구나 생명 안에서 본 것은 더욱 그러하다. 정한철 형제가 계속 자기가 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른 아이가 따로 없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이것은 두서가 없다. 갑자기 초등학교 4학년짜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뭔가 방해 받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교란 전파를 보내서 막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탁 터지면 말씀이 들어온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만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다. 기계도 어떤 범위로 만들어진 기계는 그 이상은 안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정해진 범위 외에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개는 모든 면에서 사람보다 못하다. 그렇지만 사람은 개를 흉내 낼 수 없다. 우리는 개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것이지만 개를 흉내내지 못한다.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달라서 못하는 것이다. 위치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위치가 바르게 되면, 예수님의 위치로 바뀌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것이 이것이다.

‘형상’을 영어로 ‘image’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거기 매일 필요가 없다. 이것은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지 언어에 매여서 ‘무슨 언어냐, 단어가 무엇이냐?’ 하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다. 언어로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되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같은 경험 안에 있어야 알 수 있는 말이다.

사과를 사과라고만 해서 알겠는가. 사과를 내놓고 복숭아라고 해도 우리는 사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과인 줄 안다. 그러나 사과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복숭아라고 하면 복숭아라고 생각하고 수박이라고 하면 수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의미가 정해져 있어서 한계가 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표현하기 어렵다.

‘형상을 따라’라는 말도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처럼 되려다 덜 되었다.’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 봐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는 자리에 가면 완전해진다.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겠는가?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멀쩡한 여자가 남자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겼으니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이지 여자를 수술해서 남자로 만들 수는 없다. 여자는 여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자고 남자는 남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남자다. 여자도 남자도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둘이 연합하면 완전해지는 것이다. 만물은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 형상과 실재가 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가 다 그렇게 생겼다.

그런데 사람들은 홀로 무엇이 되려고 한다. 홀로는 아무리 해도 만들어진 그대로밖에 안된다. 둘이 하면 쉬운 것을 혼자 하려니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둘이 합해지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완전히 달라진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을 떠나서 동산을 나온 사람이 가시덤불을 걷게 되었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되었다는 말은 아주 험한 길을 왔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험한 길을 왔겠는가. 둘이 할 것을 혼자 하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해야 할 일을 혼자 하니 까 험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그 고통이 홀로 똑똑해지려는 고통이고 홀로 되려는 고통이다.

세상에는 잘사는 사람들이 많다. 돈도 많고 일도 잘되고 모든 것이 잘되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만사형통하니까 에덴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은 사람 같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인가? 그 사람들 역시 가시덤불 속에서 헤매고 있다.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혼자 하려니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제사장도 혼자 성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라는 말이 나온다. 반열이라는 말은 조를 꾸몄다는 뜻이다. 우리 순모임에 1순, 2순, 3순이 있듯이 1조, 2조, 3조로 그룹을 지어서 봉사하게 되어 있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의 세계는 어느 하나도 홀로 생산하고 번성하는 것이 없다.

이로 보아 ‘연합하여’라는 말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연합을 배격하고 독자적으로 유아독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니까 둘이 합해서 완전해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홀로 완전해지려고 하면 안된다. 누구와 연합해야 되는 것이다. 남자는 여자와 연합해야 완전하게 된다.

연합의 비밀을 알면 인생이 쉬워진다. 그러나 연합의 비밀을 모르면 어려운 것이 인

생이다.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다. 등으로 만들어졌으면 반드시 불이 들어와야 되지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 써 먹겠는가. 술병으로 만들어진 것에 술을 넣지 않으면 어디 쓰겠는가. 술병에는 술을 담아야 가치가 있지 아무것도 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 인간이 그러하다. 우리는 빈 그릇이나 마찬가지로 무엇을 담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담지 않으려고 하고 절대적으로 자유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나는 절대로 자유하겠다.'는 것을 자기 속에 담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절대로 정의로워야 되겠다.'고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람이 죽게 되면 정의롭지 못해야 될 때도 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죽는 것이다. 직선으로만 갔으니깐 구부러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 매여 있는 것이지 자유가 아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거기 매여 있는 것이다. 의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리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나라고 주장할 것이 없어진다. 형상이니까 주장할 것이 없다. 빈 병들이 자기를 무어라고 말하겠는가. 담을 것이 없는데 좋은 병이든 나쁜 병이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을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심오한 말이다. 어디 가도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완전하게 정의한 말이 없다. 여자를, 남자를 이렇게 확실하게 정의한 말이 없다.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하셨다(마19:4). 처음부터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라는 말로 시작한다. 둘이 연합해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면 아주 쉽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가시덤불이다. 그래서 죄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죄'는 과녁을 빗나갔다는 뜻이다. 빗나가서 정해진 길에 있지 않은 것이 죄다. 빗나갔으니깐 맨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회개를 해도 안되는 것이다. 길을 빗나갔는데 회개한다고 되겠는가. 길을 돌이켜야 회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길에 있으면서 회개한다고 되겠는가?

기독교보다 죄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데가 없다. 불교는 아예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죄가 근본이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죄를 강조하고 밤낮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예배당은 회개하는 데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회개를 해도 끝이 없다. 어디로 회개할지 모르고 회개할 데가 없기 때문이다. 꼭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형상이라는 우리의 위치를 이탈한 것이다.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내려오는 예수가 필요하다. '아! 저것이 형상이구나.'라고 알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예수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산도 옮길 만하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타나시니까 도로 사람이다. 제자들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라는 말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 도로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왜 겸손하셨는가. 그 자리에 있으니 겸손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그 자리가 근본이다. 겸손하려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겸손하게 된 것이다. 생각해 보자.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생이 나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일부러 교만하려고 해도 안된다. 오히려 교만하기가 더 어렵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쉽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을 안하는 것이 훨씬 쉽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더 쉽다. 위치만 바꾸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바뀐다.

여름에 대천에 갔는데 사람들이 다 발가벗고 수영복 차림으로 다녔다. 거기서 양복을 입고 있으면 이상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벗고 다녀야 정상이지 옷 입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다. 위치를 알아야 살기 쉽지 위치를 모르면 해수욕장에 가서 넥타이를 매고 돌아다니게 된다. 쉽게 산다는 말이 자기 멋대로 해서 쉽다는 말이 아니다. 정상적인 길에 살면 쉬워지는 것이다. 사는 것이 아주 쉬워진다. 힘쓸 일이 없고 힘들 일이 없다.

제사장은 어째서 땀이 나면 안되는가? 그 일이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땀이 난다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루다가 저렇게 간증하는 것은 땀나는 일이 아니다. 자기는 너무 좋아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다. 저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다. 예배하려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고 꾸며서 하려니 힘이 드는 것이지 예배를 저렇게 드리면 얼마나 쉬운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렸다고 하니 나도 사랑스러워 안아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루다를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다. 거창한 것을 만들어 놓고 악대를 동원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루다는 땀을 흘리지 않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똑같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 보라. 그러면 좋아서 돈을 내고라도 더 하고 싶은 것이다.

공자님 말씀에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다. 순리를 따르면 흥하고 거역하면 망한다는 것이다. 순풍에 돛을 달고 달리는 범선을 보면 정말 신기하다. 그 큰 배가 바다 위로 미끄러지듯이 소리도 없이 가는 것을 보면 시원하다. 내가 살던 곳 앞에는 호수처럼 생긴 조용한 바다가 있었는데 그 위를 범선이 제 물살에 제 바람에 미끄러지는 것을 보면 정말 신통했다. 인생도 그 위치에 들어서면 그렇게 된다. 그러나 거꾸로 가려면 어렵다. 배가 바람을 거슬러 가려면 계속 갈지자로 가야

한다. 똑바로 못가고 갈지자로 가니까 몇 배로 힘이 든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뜻을 따라 살면 순천자가 되고 그 뜻을 거스르면 역천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입원했던 병원이 '순천향(順天鄉) 병원'인데 이름이 참 좋다. 하늘의 뜻에 따르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교회는 순천향이다. 하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교회다. 나는 죽을뻔 했는데 거기서 살아나왔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말씀은 너무 좋은 말이고 절대적인 말이다. 이것을 벗어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서 떠나면 모든 것에 맘이 나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다른 것을 하려니 얼마나 맘이 나겠는가. 손에 끼려고 만든 장갑을 발에 끼려는 것과 같다. 장갑을 발에 끼려면 되겠는가? 쓰일 자리에 쓰이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어려워지는 것이다. 인생고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인생고가 아니다. 이것이 인생고다.

소는 하루 종일 씹고 있지만 그것은 고생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씹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 그것을 귀찮게 생각하는 소는 하나도 없다. 하루 종일 씹는 것은 소에게 즐거운 취미생활이다. 모든 이치가 그러하다. 어렵다고 하고 교회생활이 괴롭다고 하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다. 순천향에 와서 괴롭다고 하면 되겠는가. 여기 와서는 편안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보고 '내 위치가 저것이고 내 운명이 저것이구나. 별것 아니구나.'라고 알아야 한다. 이렇게 알고 살면 걸릴 것이 없다. 원수끼리 모인 것도 아니고 괴롭게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자기 혼자 괴로운가? 자기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것이지 괴로운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평생 기억하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다.' 나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분을 나타내기 위한 형상으로 내가 지어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다. 이것이 인간의 사명이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에 여한이 없게 되는 것이다.

다른 것은 아무리 많이 해 봐도 만족이 없다. 장갑으로 만들어졌으면 한 번이라도 손에 끼워져야 만족이 생긴다. 손에 끼워지지 못하고 영똥한 데만 쓰인 장갑은 '나는 왜 재수 없이 주인을 잘못 만나서 쓰일 데 못쓰이는가.'라며 탄식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 만물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목적대로 쓰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야 그때 감사가 생기고 만족이 생긴다.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를 위하는 일이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나님이 지옥에 가겠는가? 욕하면 우리 입만 더러워지지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리 하나님 욕을 해도 하나님은 손상을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내가 손상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손해날 것이 있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에 안오면 자기만 손해지 교회는 손해날 것이 없다. 물론 속으로는 교회에 잘 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왔는지 다 보고 있다. 누가 안보이면 왜 안왔는지 궁금하다. 다 우리 일이기 때문이다.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신학은 인간학이라는 말을 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높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를 높이실 것이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그분은 손해날 것이 없다. 내가 그분을 높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행복해진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나만 손해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돌아다니면 누가 밥을 주겠는가, 옷을 주겠는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남편이 아내를 욕하고 다니면 덕 볼 것이 있겠는가. 아내가 남편을 욕하고 다니면 자기만 손해지 덕 볼 것이 없다. 남편과 아내는 불가분의 관계다. 내 남편은 좋다고 내가 선전해야 되지 남이 선전해 주지 않는다. 미워도 어쩔 수 없이 남에게는 좋다고 선전해야 한다. 집 안에서는 미워도 밖에 나가면 최고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을 욕하면 자기에게 무엇이 돌아오겠는가. 자기만 손해다. 하나님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 이것이 복이다.

내일 정숙희 자매 기념관 헌판식을 할 예정인데 어제 나는 정숙희 자매 간증을 듣고 잠을 못 잤다. 초저녁에 시작한 것이 너무 끌려서 듣다 보니 밤 12시가 되었다. 사람이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명이 한 순간 한 순간 없어서 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찬양을 하는데 피 한 방울도 허비된 것이 없어서 감격이고 감동이었다. 이것을 기리고 싶어서 그때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방 하나를 정숙희 자매 기념홀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이제라도 하게 되어서 마음이 너무 좋다.

이것을 계기로 정숙희 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사랑방에 올려 놓았으니 길지만 여러분이 다 읽어 보기를 바란다. 죽음을 앞에 놓고 한 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 마디가 진실하다. 그 자리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마지막에는 목이 막혀서 말도 못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했던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윤옥현 형제가 갔었다. 그리고 옥현이가 마지막에 또 그렇게 살았다. 그때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피 한 방울도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감동이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양상한 갈비뼈로 남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의 갈비뼈가 되기를 원한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다. 이보다 짙은 말이 없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영광이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사랑하시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면 인생을 넉넉하게 산 것이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나고 자라고 자식을 낳고 살다 죽으면 천 년을 사나 일 년을 사나 매한가지다. 아무것도 할 말이 없고 그냥 먹고 입고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는 것밖에 없다. 인생이 허망한 것이다. 그 허망함을 극복해 보려고 네피림이 되었지만 네피림이 된다고 허망함이 극복되었는가. 성경은 너무나 생생한 인생 이야기다. 내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다. 형상으로 쓰여야 할 인간이 형상이 아닌 다른 것이 되면 무엇을 해도 허무하다. 오래 살아도 허무하고 힘이 세져도 허무하고 큰 단체를 이뤄서 성을 쌓아도 허무하다. 그런데 형상으로 살면 하루를 살아도 천 년을 사는 것 같다.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란다.